

# '백제왕궁이 살아있다'

익산문화재 벚꽃야행 · 달빛 속 왕의 후원 향유 기회... 메인 주차장 · 셔틀버스 운행

1600년 전 백제 왕궁이 벚꽃 달빛 아래 살아난다. 익산시는 대한민국 대표 벚꽃 명소로 유명한 백제왕궁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2023 익산 문화재야행' 행사를 개최 시기에 맞춰 다음달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재 야행은 '벚꽃' 테마를 통해 기존 야행과 대폭 차별화되는 기획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이 살아있다'는 부제를 달고 전국 47개 야행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 벚꽃이 만발한 시기에 개최돼 전국 각지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익산 문화재야행'은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인생샷'을 위해 야간경관에 차별화를 보여준다. 벚꽃 만발한 수려한 야간경관이 백제 왕궁 후원을 비롯

하는 만들기 체험이 대폭 확대된다. 후원정원으로의 휴식공간 제공도 눈에 띈다. 왕의 휴식처로 사용된 후원 정원에서 방문객을 위한 왕궁 연회, 다도 및 공연 체험 등이 이뤄져 백제 무왕이 왕궁을 내려다보며 느낄 수 있는 운치를 맞볼 수 있다.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을 통해 알아가는 백제왕궁 이야기는 프로그램 중 백미다. 별빛 아래 천년기원을 담은 탐돌이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백제복식을 입고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왕궁을 거닐다 프로그램으로 백제왕궁 건물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왕궁박물관 야간 개장을 통해 유적과 발굴체험, 가상현실을 이용한 백제 알기도 가능하다. '별거뵙은 한국사'로 유명한 '별별 최대성 탄생' 강연도 백제왕궁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학생들을 비롯해 가족, 친구, 연인,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골여행으로 소소한 자유여행을 선사하며 농촌관광 메카로 도약한다.

## 인성교육 접목한 농촌체험

익산시, 농촌관광 매주 800명 학생 관광객 치유 여행 인기

익산시가 학생들을 비롯해 가족, 친구, 연인,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골여행으로 소소한 자유여행을 선사하며 농촌관광 메카로 도약한다.

시는 '익산 방문의해'를 맞이해 1월부터 이달 12일 기준 총 10주 동안 농촌관광 학생관광객이 약 8,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매주 800명이 익산 농촌을 방문해 시골 힐링 체험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이달까지 2,971명 학교 학생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체험을 다녀갔으며, 추가로 2,300명이 익산문화유산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으로 참여 예약을 상했다.

또한 4만2,000명의 어린이 회원을 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이미 올해 5,000명의 어린이들이 방문,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를 익산 농촌관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지난해 익산교육지원청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창의적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시는 농촌관광객 확대를 위해 가족, 친구, 연인, 학교 반려동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깃 관광객 수요에 맞춘 △농촌관광 지원조사 △서비스 물품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숙박·체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했다.

특히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여행 일정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며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험·숙박비 1일 1만 원(최대 50%)을 지원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 국내 최고의 농촌관광지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안전 등 최적의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발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이성재 선임연구원(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비전 목표 전략, △특별자치도 추진배경과 의미, △달라지는 점과 변화되는 미래상, △추진과제 및 방향 △군산시에 적합한 특례발굴 방향 및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 시 관과소장 및 주무계장 등 200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특례 발굴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전 직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례발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전 직원 교육 실시

익산시는 지난 1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의 저자이자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기부제 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신승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소개, 기금 사업 발굴 및 홍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전대식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열풍이 대한민국 전역에 불고 있다"며 "익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준공 '눈앞'

4월 준공... 5월부터 본격 운영

군산시가 골목상권 가격경쟁력 향상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암동 504-2번지 일원에 소재한 물류센터는 부지 1만1,813㎡에 1,300여 평의 창고를 포함한 건물 2동(1,978㎡) 규모로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해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며, 1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체결한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이훈구)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대형 창고와 냉동·냉장시설까지 갖춘 물류센터는 공산품은 물론 냉장, 냉동, 정육 및 1차 상품까지 1만6,000여 품목을 소상공인들에게 원스톱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부족한 상품 구매를 위해 대형물류센터나 타지역으로 구매를 하러 빠져나갔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물류센터 운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확대 및 대량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골목상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는 지역 순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물류센터를 통한 절감된 물류비가 소비자에게 환원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물류센터의 건립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건전한 센터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안심물가제 실행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 글로벌프로젝트 '1000BOOKS' 시동

전북 최대규모인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이 글로벌 프로젝트 기적의 영어책 읽기 'MIRACLE READING 1000BOOKS' 신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000 BOOKS' 캠페인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도서관에서 유아기의 책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다.

'1000 BOOKS'는 하루에 한 권 부모나 보호자가 취학 전 3년 동안 매일 1

권씩 1000권의 영어책을 읽어주면 전 세계의 다양한 그림책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영어와 친숙해져 영미 문화에 대한 글로벌 감각까지 얻게 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꾸준히 대출하여 읽으면 되고 도서 대출시 데스크에서 Reading Record(스텝프북)에 인증도장을 받아 책 권수를 기록할 수 있다.

의 책이 담겨진 '1000권의 추천도서 꾸러미'를 우선적으로 대출하여 읽으면 된다. 추천도서 꾸러미 대출은 1000BOOKS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1000 BOOKS' 캠페인 참여자 중 100권 읽기를 달성한 대상자에게는 영어도서관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최종 1000권 읽기를 달성한 대상자에게는 메달과 증서가 수여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에 슬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Basking Zone) 지정·운영,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 증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산이 버스킹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